CALS newsletter No. 38 2017. 3. | College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 newsletter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공식 홈페이지 http://cals.snu.ac.kr/
발행인 : 정철영, 편집인 : 이인복
편 집 : 대외협력 · 홍보위원회
(강문성 · 신찬석 · 안동환 · 여환명 · 윤희연 · 이기훈 · 이은진 · 조철훈)

제71회 전기 학위수여식



서울대학교 제71회 학위수여식이 2017년 2월 24일 오후 2시 관악캠퍼스 종합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 학사 2,422명, 석사 1,804명, 박사 699명 총 4,925명(농생대 학사 185명, 석사 96명, 박사 48명 총 329명)에게 학위를 수여했다.

성낙인 총장은 학위수여식사에서 "편향되지 않은 균형적 사고, 단편적 지식을 극복하는 지성, 사익을 뛰어넘는 공익정신으로 끊임없이 정진해야 한다"며 "삶의 깊이와 철학이 느껴지는 품격있는 서울대인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축사는 서정화 총동창회장, 조규진 교수가 해주었다. 그리고 프로네시스 나눔실천단 단장인 종교학과 이진열 학생이 졸업생 대표 연설을 하였다. 전체 학위수여식 행사 후 각 단과대학 및 전문대학원별로 학위수여식을 진행하였다.

서울대학교 2017학년도 입학식



서울대학교 2017학년도 입학식이 2017년 3월 2일 오전 11시 관악캠퍼스 종합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올해 입학하는 신입생은 학부 3,363명, 대학원 3,360명으로 총 6,723명(농생대 학부 329명, 대학원 187명 총 516명)이었다. 이날 신입생 선서는 간호대 박세은 학생이 대표로 하였다.

성낙인 총장은 입학식사에서 "이 순간부터 이곳이 '서울대학교'라는 것을 잊고 자신을 갈고 닦으며 겸손함과 열린 사고, 남을 배려하는 따뜻한 인성을 기를 것"을 당부했다.

독일 베를린자유대 Peter Andre Alt 총장이 축사 연사로 초청되어 대학 생활의 중요성, 국제적인 교육 및 연구 활동 등을 강조하며 서울대 신입생들의 입학을 축하하였다.

〈주요내용〉

1~3면_농생대 헤드라인
4~5면_농생대 인사이드
6~8면_Interview
9면_언론에 비친 농생대
10면_농기자가 간다
11면_기금출연 소식
12면_농생대 사람들

이전제 교수 정년 퇴임식



2017년 3월 3일 200동 윤대섭 대회의실에서 이전제 교수(산림과학부)의 정년 퇴임식을 가졌다. 이전제 교수는 1987년 우리 대학에 부임한 이후 30년간 교수로 재직하면서 농생대 학장, 학생부학장, 기획실장, 창업보육센터장, 임업과학연구소장 등을 역임하면서, 대학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농생대 숙원사업인 "관악캠퍼스 이전"과 "평창 그린바이오연구단지" 조성에 기여하는 등 농생대 연구 및 발전에 공헌하였다. 퇴임 후에는 관련 학문 강의와 연구, 서적편찬 등 왕성한 활동을 할 계획을 밝혔다.

신임교수를 소개합니다. – 농업생명과학대학 –

강준석 교수, 조경 · 지역시스템공학부 부임



강준석 교수가 2017년 3월 1일자로 조경 · 지역시스템공학부 조경학전공 조교수로 부임하였다. 강준석 교수는 고려대학교 토목공학과에서 학부 및 석사과정을 마친 뒤 현대건설에서 엔지니어로 재직하였다. 이후 미국 Auburn University의 토목공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동 대학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미국 Georgia Southern University의 토목공학 · 건설경영학과에서 조교수로 재직하였다. 강준석 교수의 전공은 조경건설공학이다.

"조경 · 지역시스템공학부 조경학 전공으로 신규 임용된 강준석입니다. 지면을 빌어 다시 한 번 제게 큰 소명과 기회를 주신 학교와 단과대학 그리고 학부 교수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교원으로 사는 것은 제게 3가지의 큰 도전과 숙제가 주어진 것입니다. 첫째는 새로운 분야에의 도전입니다. 토목구조를 전공한 제게 생소한 조경건설공학이라는 분야를 개척하고 새롭게 발견해가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둘째는 미국에서 근 5년 반의 교수생활을 해오다 한국에서 교수로 사는 삶을 시작하는 도전입니다. 연구 및 교육환경의 다름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셋째는 타교 출신으로서 거대한 서울대라는 이름을 달고 사는 부담감입니다. 세 가지의 도전과 숙제가 부담감보다는 제 가슴을 뛰게 하고 활력을 주고 있습니다. 조경건설공학은 국내외적으로 생소하고, 필요성에 다들 공감하면서도 관심받지 못했던 분야입니다. 조경인이 조경공학을 논할 때 서울대 조경공학연구실이 중심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미국에서의 교수로서의 경험을 살려 좋은 스승과 연구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를 개인적으로 모르셨지만 편견없이 저의 가능성에 투자한 서울대의 배짱과 이름에 걸맞은 SNU Man으로 살아가겠습니다. Go CALS!

박영준 교수, 바이오시스템 · 소재학부 부임



박영준 교수가 2017년 3월 1일자로 바이오시스템 · 소재학부 바이오시스템공학전공 조교수로 부임하였다. 박영준 교수는 본교 농공학과 농업기계전공에서 학부과정을 마친 뒤 박사학위를 취득(석박사 통합과정)하였고, 이후 본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2006년 1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선임 및 책임연구원으로 재직하였다. 박영준 교수의 전공은 노외기계설계 및 토양기계시스템이다.

"2006년 12월 취업과 동시에 떠났던 서울대학교에 10년 만에 학생이 아닌, 교수로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매우 기쁘고 영광스러운 자리이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고 조심스러운 자리입니다. 대학교수로서 당연한 생각이겠지만 저는 기본을 중시하면서 교직 생활을 수행하겠습니다. 교육자로서 학생들과의 거리를 좁히고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교수로서의 권위를 내세우기보다 학생들에게 먼저 다가가며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연구자로서 대한민국의 농업기계 산업의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겠습니다. 또한, 한국 농업기계 산업에 있어 미래의 먹거리뿐 아니라 국내 농기계업체들이 처한 문제에 대해서도 산학 공동 연구를 통한 해결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대와 농생대의 발전을 위해 저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뭐든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서울대학교 농생대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주신 많은 농생대 선배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처음이라 많이 부족하고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겠지만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에게 다가가는 농업생명과학대학

2017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부터 농업생명과학대학에서는 새 프로그램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다. 지난 1월 11일부터 13일까지 2박 3일 동안 개최된 '제1회 농업생명과학 청소년 캠프'가 열리기 때문이었다. 제1회 농업생명과학 청소년 캠프(이하 농생명과학청소년캠프)의 목적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전공체험기회 및 진로탐색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번 캠프를 통해 전국 각지의 고등학교 학생들은 농생대와 농업생명과학분야의 비전을 이해하고 체험해볼 수 있었다.



농생명과학청소년캠프

2박 3일간의 농생명과학청소년캠프

이번 농생명과학청소년캠프는 전국 각지의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중 40명을 선발하여 진행되었다. 본 캠프의 목적은 학생들에게 '농업생명과학 분야 및 전공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농업생명과학분야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이고 앞으로의 비전을 알리는 것이다. 2박 3일간 서울대학교 농생대에서 진행된 캠프는 날짜마다 '함께하는 CALS, 체험하는 CALS, 실천하는 CALS'라는 이름을 붙여 진행되었다. 이러한 이름과 목적에 걸맞게 농생명과학청소년캠프는 농생대 교수님들이 진행하는 특강과 다양한 실험, 학생들의 체험 결과 발표회로 구성되었다. 참여한 고등학생들은 농업생명과학 분야별(생명과학, 환경과학) 실험 및 실습을 통해 해당 분야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향후 이 분야의 비전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다.

농생명과학청소년캠프의 차별성

이번 캠프의 차별점은 농업생명과학분야 실험 이외에도 '멘토링 활동'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캠프 동안 농생대 재학생과 고등학생의 비율을 1:5로 지정하고 멘토링 활동을 진행하였다. 농생대 재학생과 고등학생의 멘토-멘티 관계형성을 통해 멘티는 자신의 진로와 학습에 관련해서도 멘토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재학생 멘토들 또한 전공 분야에 대해 비전을 형성하고 자긍심을 고취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재학생 멘토들은 프로그램 및 조별 활동 운영 및 지원 등의 역할을 하였고, 농산업교육과 대학원생이 슈퍼바이저로서 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 감독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활동이 끝난 후에는 CALS 리플랙션과 체험 결과 발표회를 통해 2박 3일 동안의 캠프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있었던 것이 농생대 캠프만의 가장 큰 차별성이다.

참여 학생들이 말하는 농생명과학청소년캠프

이번 농생명과학청소년캠프의 지원자 수는 200명이 넘었으며, 치열한 경쟁을 뚫고 40명의 학생이 캠프에 참여할 수 있었다. 참여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전체 평균 4.66점(만점 5점)으로 많은 학생이 프로그램에 크게 만족하였다. 학생들은 특히 실험 실습과, 멘토-멘티 활동에 큰 만족도를 보였다. 멘토 멘티 활동은 평균 점수 4.8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이러한 결과로 이번 캠프의 목적이 잘 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참여 학생들은 고등학교에서 접하기 힘든 실험 및 실습에 직접 참여해보고, 멘토들과의 대화를 통해 학습과 진로 및 대학생활에 있어 궁금한 점을 해소할 수 있었다. 또한 농업생명과학분야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었던 점이 학생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한 듯하다.

앞으로의 농생명과학청소년캠프

제1회 농생명과학청소년캠프가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참여 학생들은 다양한 분야의 실험과 특강, 멘토-멘티 활동을 통해 특별한 경험을 갖게 되었다. 이번 캠프를 통해 자신의 꿈을 구체화한 학생들도 많다고 한다. 멘토들 또한 농업생명과학분야의 비전에 대해 이해하고 다른 전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성공적이었던 이번 캠프가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한다. 환경과학과 생명과학 분야를 분리해서 캠프를 진행하는 새로운 시도를 할 수도 있고, 2박 3일로는 아쉬운 학생들을 위해 기간을 늘릴 수도 있다. 앞으로 더 많은 고등학생에게 농업생명과학분야에 대한 비전을 알리기 위해 농생대 청소년 캠프는 꾸준히 개최되어야 할 것이다. 캠프 참여를 통해 많은 고등학생들이 꿈을 찾고, 농생대에 진학하거나 농업생명과학분야에 진출하기를 바란다.

학생기자단 제4기 **나혜지**, 제5기 **박유빈**, 제6기 **김수연**



서울대 농생대–전북대 농생대 학술교류협정체결

2017년 2월 6일 우리 대학과 전북대 농생대는 학술림 상호 교류를 목적으로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정을 통하여 양교 산림 분야 학생 교육 및 실습에 상호 학술림 시설물을 공동으로 활용하기로 했으며, 각종 정보 교환 및 공동 연구 등 상호 교류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체결식에는 전북대 농생대 나종삼 학장, 정철영 학장, 그 외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서울대 농생대–국립대만대 농생대 학술교류협정체결

2017년 3월 27일 우리 대학 집행부는 국립대만대학교 농업생물자원대학(College of Bio-resources and Agriculture, National Taiwan University)을 방문하여, 대학 간 학술교류와 학생 교환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번 체결식에는 국립대만대학교 농업생물자원대학 Yuan-Tay SHYU 학장 외 부학장, 학부장 10여 명이 참석하여 양교의 상호 협력 관계 형성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주었다. 협정식 이후에는 세계적인 수준의 국립대만대학교 식물 생태 연구 시설 방문 등 시설 농업에 대한 견학 및 정보 공유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우리 대학 학생 및 교수의 상호 교류를 통한 양교 교류 활성화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목장–㈜에코파트너즈 산학협력 MOU 체결

2017년 2월 23일 우리 대학 목장은 친환경 기업 ㈜에코파트너즈와 산학협력 MOU 체결식을 서울대 평창캠퍼스에서 개최하였다.

위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보유한 자원 및 역량을 기반으로 사육 동물들의 사양관리 기술 연구 및 관련 기기 개발 등을 협력하기로 하였다.

현재 목장 축사에는 ㈜에코파트너즈의 원적외선 음이온 광열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겨울철 대동물의 취약점인 한파와 호흡기 질병에 대비하고 살균과 냄새 제거를 통하여 동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임정묵 목장장은 연구내용(면역력 향상, 질병 예방 및 환경개선 효과 등)을 목장 대동물의 개체별 사양관리데이터에 반영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통하여 사양–번식–질병예방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구축하는 데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농생대 학사졸업 우수논문상 시상식

2017년 2월 10일 200동 3층 윤대섭 대회의실에서 농생대 학사졸업 우수논문상 시상식이 개최되었다. 학사졸업 우수논문상은 우리 대학 학생들의 학사 학위논문 내실화 및 우수 학위논문 작성을 권장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전공별로 1명씩 총 15명을 선발한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SCI급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성과를 이룬 김연욱(지역시스템공학 09) 학생 외 14명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이날 학장 외 집행부와 전공주임교수들도 참석하여 학생들을 격려하고 축하해주었다.



제18차 CALS 농생명산업특강 개최

2017년 3월 15일 13시 30분 203동 101호 허영인홀에서 우리 대학 학생행정실이 정황근 농촌진흥청장을 강사로 초빙하여 CALS 농생명산업특강을 개최하였다. 이날 정황근 농촌진흥청장은 '농업의 미래 첨단 융복합 기술로!'라는 주제로 강의하였으며, 학생 및 연구원 등 총 79명이 청강하였다.



목운문화재단 장학금 수여식

2017년 2월 20일 3층 윤대섭 대회의실에서 각 전공 추천 학부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목운문화재단 장학금 수여식이 개최되었다. 우리 대학 최인혁(작물생명과학 13) 외 학부생 9명, 대학원생 8명, 졸업 최우수 1명, 학문후속세대 2명 총 21명에게 장학금이 전달되었으며, 이날 수여식에는 한인규 기금출연자, 하종규 교수, 학장 및 집행부, 전공 교수들이 참석하였다.



일성장학금 수여식

2017년 3월 20일 200동 3층 소회의실에서 정윤환 일성화학 대표가 출연한 일성장학금 수여식이 있었다. 이날 수여식에서 우리 대학 각 전공에서 추천한 학부생 9명과 대학원생 8명에게 장학금이 전달되었다. 학부생은 1인당 등록금 전액, 대학원생은 1인당 자연계 300만원, 인문계 250만원씩 혜택을 받았다. 이날 수여식에는 정윤환 기금출연자, 학장 외 집행부, 장학생 17명이 참석하였다.



CALS 해외학술대회 발표법 강좌

2017년 1월 5일 우리 대학 학생행정실에서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학술대회 발표법 강좌를 운영하였다. 강좌는 해외학술대회 등에서 본인의 연구 과제를 영어로 원활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강좌 강사로는 봉민아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전임강사가 초빙되었다. 강의에는 총 24명의 대학원생이 참석하였으며, 우리 대학 소속 대학원생들의 학술 영작 능력과 연구역량 및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2017 신입생 대학생활 안내 및 새내기 새로 배움터 개최

2017년 2월 15일 201동 101호에서 2017학년도 신입생 대학생활 안내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신입생 276명이 참석하였다. 세부일정으로는 인권/성 평등 교육을 시작으로 NEO－Ⅱ 인성검사, 동창회장의 특별장학금 수여 및 축사, 학생부학장의 대학생활 안내, 이기훈 교수의 '상록의 아들 배우기' 등으로 진행되었다. 대학생활 안내를 마치고 충주 양성면에 위치한 켄싱턴 리조트로 2017학년도 새내기 새로 배움터(새터)를 떠났다. 2박 3일의 일정으로 신입생 276명 포함 6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선·후배 간의 정을 나누고 단합과 농생대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날 행사에는 학생부학장 외 교수 31명이 참석하였다.



농업생명공학분야 소통 위한 '그린바이오 포럼' 공식출범

2017년 3월 15일 11시 서울대 농생대 75-1동에서 농업생명공학분야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핵심 분야별 의견수렴 및 정책 방향 반영,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그린바이오 포럼'이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하였다. 이날 현판식은 식물분자육종사업단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황인규 서울대학교 기획부총장, 정철영 학장, 정황근 농촌진흥청장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하였다. 초대 그린바이오 포럼 대표는 최양도 농생명공학부 교수가 맡게 되었다.

농생대 풍물패 '두레'

서울대학교 농생대의 풍물패인 '두레'는 전국 대학교 풍물패 중 가장 먼저 설립되었고, 매년 판굿 공연을 올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공연에 참여하고 있다. 특별하고 오랜 역사를 지닌 농생대 풍물패 동아리 두레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농악대부터 풍물패 동아리 두레까지

농생대 풍물패 '두레'의 역사는 196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9년 최수왕(수의학 67)을 대장으로 농악대가 설립된 것이 두레 역사의 시작이다. 이후 1978년에는 '서울대학교 농악반 두레'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두레라는 명칭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 수원에 있을 때부터 협소한 공간을 연습실로 사용하면서도 풍물패의 학생들은 열정적으로 공연을 준비했다.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동아리가 사라질 위기도 있었지만, 농생대가 관악캠퍼스로 이전하면서도 두레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에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다. '농생대 풍물패인 두레가 농생대 관악캠퍼스 이전 행사 때 판굿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진 선배들과 교수님들이 중심이 되어 다시 두레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이다. 2005년부터는 두레뿐 아니라 다른 단과대의 풍물패가 연합하여 '단풍연'으로 활동하고 있고, 2009년에는 두레 40주년 기념의 큰 행사를 열기도 하며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함께 흘리는 땀방울, 피어나는 추억

두레에서는 현재 1학기 봄 판굿과 2학기 가을 판굿, 축제기간 판굿 등의 공연을 열고 있다.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판굿은 상쇠와 꽹과리를 치는 쇠치배, 장구를 치는 장구치배, 북과 징을 연주하는 사람, 양반이나 각시 역할을 하는 잡색 등으로 구성된다. 판굿에서 중요하지 않은 역할은 없는 만큼, 회원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공연 준비와 풍물 전수에 많은 열정을 쏟는다. 여름방학에는 전라북도 임실의 전수관을 찾아가 채상(상모돌리기) 전수, 장구 전수 등을 받고, 겨울방학에는 숙소를 잡고 1주일 동안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사물 가락을 알려주며 공연을 위해 연습한다. 학기 중에는 판굿을 열기 전까지 일주일에 2번씩 모여 연습하고, 따로 전수관을 다니며 악기와 채상에 대해 더 배우기도 한다. 한 두레 회원은 "특히 여름방학 전수 때가 기억에 남는다."며 "아침 8시부터 저녁까지 더위와 싸우며 고된 연습을 하느라 힘이 들지만, 연습이 끝나고 함께 막걸리를 마시며 뒤풀이를 하던 순간에는 그 누구도 부럽지 않다."고 말한다. 공연에 얽힌 재미있는 일화도 있다. 그는 "재작년에 버들골에서 판굿을 할 때 비가 내렸는데, 그때 장구가 젖어 공연이 끝나고 나서 다 같이 장구를 말리느라 고생했던 일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잊을 수 없는 순간을 회상했다.

끊임없는 사람들과의 교류

두레 회원들은 끊임없이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한다. 두레는 서울대학교 단과대학 풍물패 연합 '단풍연'에 참여해 봄, 가을 판굿을 함께 준비하고 여름 전수도 다 같이 받는다. 활동을 하며 농생대 학우뿐 아니라 풍물놀이를 즐기는 다양한 단과대 사람들과 함께 교류할 수 있다는 점이 두레의 큰 장점이다. 또한 굿이 끝나갈 무렵 정해진 가락 없이 풍물패가 신나게 섞여서 노는 부분인 '난장', 12월 31일에 관객들과 풍물패가 어우러지는 '송구영신 굿'을 통해 끊임없이 사람들과 교류하는 두레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한편 두레에서는 홈커밍데이를 열어 선배들을 초청하고, 함께 고사를 지내며 악기를 연주하는 시간도 갖는다. 연배가 있으신 선배님부터 최근 졸업한 선배님까지 모시고 함께 식사를 하며, 동아리의 깊은 역사를 듣고 선배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두레 회장을 맡고 있는 민정원(조경학 16)은 "판굿은 원래 마당에서 풍물패와 관객이 어울리는 재미가 있는데, 요즘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두레 회장으로서 학교 안에서 판굿 공연을 할 때 관객들과 어울리며 신나게 공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싶다"고 전했다. 또한 "전국에 있는 대학 풍물패 중 가장 역사가 깊은 서울대 농생대 풍물패 '두레'는 자부심을 가지고 동아리 활동을 오래 지속하는 부원들이 많고 다른 농생대 학우들과 오랫동안 돈독히 지낼 수 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앞으로도 다양한 공연과 교류를 통해 두레의 역사는 계속될 것이다.

학생기자단 제5기 **박유빈**, 제6기 **송이레**, 제8기 **장수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힘. '스마트나노' 사장, 김립 동문


김립 동문(원예학 80)

서울대학교 농생대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수원캠퍼스, 이곳에는 농생명과학의 벤처 창업 지원을 위한 창업지원센터가 위치하고 있다. 40개가 넘는 업체들이 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해 있으며 농업에 관한 다양한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그중 '스마트나노'는 원예학과 80학번 김립 동문이 사장으로 있는 나노를 이용한 기술 개발 연구 업체이다. 이번 호에서는 농업에 나노를 접목시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나갈 '스마트나노'를 운영하고 있는 김립 동문을 만나보았다.

창업을 시작하기까지 걸어온 길

김립 동문은 스마트나노를 시작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저는 스마트나노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그리 특별한 것 없이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와 뜻이 맞는 친구가 좋은 연구 주제를 발견하며 현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연구해온 자료들을 더욱 다듬고 개발해서 이를 토대로 사업을 펼친 것입니다."라며 운을 띄웠다. 그는 대학에 입학할 때부터 농업 연구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김립 동문이 입학할 당시에는 농업이 큰 각광을 받지 못했고 오히려 천시받을 때였다. 그는 그때와 달리 농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된 현시대에 대해 기쁜 마음을 보였다. 이렇게 시작한 지 약 3년이 지난 스마트나노는 꾸준히 성장 중이며 나노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스마트나노에 관하여

스마트나노는 나노에 관해 연구하는 회사로 다양한 기술 개발 소재들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폴리머, 즉 중합체 플라스틱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그래핀을 활용하며 나무 메탈 응용 기술도 개발하고 있다. 김립 동문은 주 연구 책임자를 맡고 있으며, 연구소 소장은 서울대학교 자연대를 나온 동문이 맡고 있다. 그는 "생산된 물질과 가공기술까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식물 공장을 만들 수 있는 기본 베이스는 확보가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맡아서 해줄 분을 찾지 못한 것은 안타까워요."라고 말하며, 좋은 기술을 통해 제품을 만들어도 시장이 부족한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러한 기술 외에도 그는 농업에서 필요로 하는 나노 비료 농약을 비롯한 제품들이 우리나라에는 거의 개발되어있지 않다고 말하며, 이에 반해 스마트나노는 나노 소재를 이용한 가공을 통해 완제품을 만드는 통합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원이 필요한 곳에, 창업지원센터


창업지원센터 전경

스마트나노는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 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해있는 기업이다. 창업지원센터는 농생명과학 분야에 대한 창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인프라를 지원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기술 지원 및 자문 서비스 또한 제공하고 있다. 김립 동문은 "지원센터는 초기에 회사가 자금, 경영 지원, 장비 지원 등의 외적인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줍니다. 또한, 센터에 속해 있음으로써 마케팅에 도움이 되는 면도 있기 때문에 적지 않은 혜택이 있다고 할 수 있죠."라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창업지원센터는 공개업체이기 때문에 농생대 출신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오픈되어있습니다. 센터에서 지원받고 있는 40개가 넘는 업체 중에서 15개의 업체가 농생대와 관련 없는 일반 창업자죠."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스마트나노 회사에 대해 "이곳은 농생명과학에 특화되어있기 때문에 연구할 수 있는 외적 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공기가 맑고 주변 환경이 좋은 것도 큰 장점이죠."라며 웃음을 지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라

김립 동문은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다. "목표는 성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공을 해 돈이 많이 모인다면 젊은 청년들을 육성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은 창업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서 육성과 함께 청년 창업도 지원하며 돕고 싶어요. 이것이 저의 또 다른 목표입니다." 그는 창업을 생각하는 후배들에게 "실패에서 오는 두려움을 없애고 창업에 도전해야 합니다. 오히려 20대 때 성공하는 게 더 위험한 일일 수 있죠."라며 도전의식을 강조했다. "젊었을 때는 실패한다 해도 일어날 힘이 있습니다. 경험을 많이 쌓아두면 주변의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힘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는 농업 관련 창업에 대해서도 "농업과 IT 융합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농업 기술에 대한 발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은 새로운 블루오션이고, 창업한다면 다양한 농업 분야에 관해 연구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라며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학생기자단 제4기 **나혜지**, 제7기 **김민지**, 제8기 **김승민**

CALS Newsletter의 교수 릴레이 도서 추천

열여덟 번째 주인공은 농생명공학부 임정묵 교수!



임정묵 교수
(농생명공학부)

임정묵 교수는 1987년 서울대 수의학과를 졸업한 후 일본으로 건너가 1991년에 오비히로 대학(Obihiro University)에서 농학 석사 학위를, 1994년 오카야마 대학(Okayama University)에서 이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 후 1996년 미국 루이지애나 주립 대학(Louisiana State University) 의과 대학에서 박사 후 과정을 마치고 농과 대학에서 전임 강사로 근무하였다. 1998년 한국으로 돌아온 그는 차의과학대학교 해부학 교실 조교수직을 거쳐 2000년에 서울대학교 농생명공학부 동물생명공학전공 교수로 부임했다. 본교에서 발생학 관련 연구와 교육에 전념하고 있는 그는 현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종양생물학 겸임 교수이기도 하다.

교수님이 현재 전공을 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임정묵 교수가 그동안 수의과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의과대학 등 다양한 곳에 몸담았던 경험은 그가 다양한 분야를 넘나든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임 교수는 대학 시절부터 "발생학이라는 오직 하나의 분야"에 빠져있었다고 한다. 그는 학부생 시절 유일하게 성적이 좋았던 과목인 발생학에 끌려 자연스럽게 해당 분야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며 학생들도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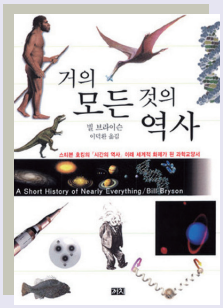
교수님의 대학생활은 어떠했습니까?

임정묵 교수는 대학 시절 자유로운 혼자만의 여행을 매우 즐겼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학업에만 몰두하기보다는 학교를 벗어나 다양한 곳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방면의 경험을 했다며 대학 시절을 회상했다. 임 교수는 이러한 대학 생활을 통해 인생과 세상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었다고 전하며, 우리 학생들도 이런 시간을 가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학생들에게 한마디

임정묵 교수는 학생들에게 대학 생활을 하는 동안에 성적에 얽매이지 말고 인생에 대해 고민하라는 조언을 전했다. 그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게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일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특히 "대학생 때의 고민을 바탕으로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진로를 정해서 한 우물만 팔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사회에 나가기 전에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학생들이 진로를 찾기 위해서 실수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다양한 것을 경험하며 세상에 대해 고민해보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도서 추천



『거의 모든 것의 역사』 (저자 : Bill Bryson)

『거의 모든 것의 역사』는 '현존하는 가장 유머러스한 작가'라는 평을 듣는 작가 빌 브라이슨이 과학과 인물의 역사와 현재를 재미있게, 그리고 쉽게 풀어낸 책이다. 저자가 3년에 걸쳐 전 세계의 과학자들을 찾아가 설명을 듣고, 학습하고, 방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탄생시킨 과학교양서이다. 그는 많은 사람이 학교에서 지루하고 어렵게 느꼈을 과학의 분야들을 그들에게 새롭게 이해시키기 위한 도전을 했다. 어려운 도표나 수식이 없음에도, 독자는 이 책을 통해 과학 지식 전반을 파악하고 과학이 어떻게 현재에 이르렀는가를 알 수 있다.

임정묵 교수는 "이 책은 단순한 과학 서적이 아니고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의 역사'를 담은 책으로 철학, 생물학, 천문학, 물리학, 지구과학 등 다양한 학문이 융합되어 있다"며 이 책을 추천하였다. 그는 학생들이 이 책을 통해 통합적이고 융·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한다. 임 교수는 실제로 이 책을 학생들에게 계속해서 추천해왔다고 덧붙였다.

〈다음 호의 도서 추천 주인공은?〉

임정묵 교수에게 다음 호의 주인공을 추천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가 추천한 주인공은 농산업교육과의 '나승일' 교수. 나승일 교수의 추천도서는 다음 호에 공개!

학생기자단 제6기 **송이레**, 제7기 **성가영**

〈2017. 1. 11. 한국경제〉

식물 추출 천연물질로 집먼지진드기 잡는다



천식 알레르기 등을 일으키는 집먼지진드기를 박멸하는 천연물질이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되었다. 안용준 서울대학교 농생대 교수는 11일 계피, 국화 등의 식물체를 활용해 집먼지진드기를 없애는 천연물질 'CB-FN'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안 교수는 2005년부터 집먼지진드기를 박멸할 수 있는 천연물질 개발을 시작했다. 식물이나 약초의 사용 방법이 기록된 동의보감, 본초강목 등을 참고해 200종류의 식물체 성분을 살펴봤다. 그는 계피가 예부터 천식 치료에 사용된 점에 주목했고, 주요 성분인 알데히드 및 알코올류 등을 추출해 집먼지진드기를 없애는 천연물질을 개발해냈다. 안 교수는 집먼지진드기 박멸과 함께 집먼지진드기 사체와 배설물에서 나오는 특이 단백질을 분해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집먼지진드기 사체와 배설물에서 나오는 특이 단백질이 알레르기, 천식 등의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시중에 나와 있는 살충제는 특이 단백질을 분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탄닌산이라는 화학물질을 따로 뿌려야 한다. 그러나 탄닌산은 시간이 지나면 미세가루가 남아 호흡기나 피부에 문제를 일으킨다. 면역력이 약한 소아에게 특히 유해해 일부 국가에서는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안 교수는 "CB-FN은 무해한 데다 탄닌산보다 단백질 분해 효과도 높다"고 설명했다. 시험 결과 CB-FN은 유해 단백질의 85% 이상을 구조적으로 감소시켰지만 탄닌산은 40%를 줄이는 데 그쳤다. 안 교수는 CB-FN 상용화를 준비 중이다. 옷, 이불 등에 뿌리기 쉬운 스프레이, 자동차 에어컨에 꽂는 제품, 옷장 속에 넣어 놓는 제품 등을 올 상반기 출시할 예정이다.

김근희 기자

〈2017. 1. 23. 농민신문〉

[농업전망 2017] 韓농업생태계 최적화 기술 필요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제품이나 서비스 등 좁은 경쟁이 아닌 라이프스타일을 대상으로 생태계 경쟁이 벌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래 농업기술은 한국적 농업생태계에 최적화된 기술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농업의 경쟁력을 재평가하고 새로운 성장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농업생태계는 우수한 정보화기반, 영세한 규모, 우수한 농업기술, 우수한 물류(택배)시스템, 노령화된 농촌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미래 기술을 농업에 국한시키지 말고 농촌문제 해결에 함께 이용한다면 미래형 기술의 경제성과 농촌 정주여건이 개선되며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을 자료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농업·농촌의 문제해결 수단으로써 스마트농업기술을 재평가하고 비전과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협의체도 필요하다. 이 협의체는 농업·농촌의 지속발전모형 개발과 스마트농업생태계 조성을 주도해야 한다. 현재 미래농업기술에 대한 정책은 농업 분야별 불균형을 가속시키고 잠재적 농촌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하드웨어의 보급에만 치중하기 보다는 스마트농업이 해결책이라는 것을 농업인에게 올바르게 인식시키고 산업생태계를 건강하게 할 기술과 지식중심의 벤처형 컨설팅업체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농업기술의 연구개발, 교육과 농촌의 복지향상, 비교역적 기능 강화, 농가소득과 생산능력 향상을 위해 도별(9개)또는 영남, 호남, 충청, 경기·강원 권역별(4개)로 스마트농업 실증사업단지 조성과 운영을 해야 한다. 또한 총괄사업단을 구성해 기획, 핵심기술 개발, 권역별 사업단 공모, 평가 등을 추진하고 각 권역별 사업단이 수행하는 스마트농촌 연구는 중앙정부가 추진해야 한다. 스마트농촌 연구는 경종농가 정보화, 농촌 환경의 정보 수집과 관리 연구, 농촌의 정주·복지서비스(도난안전, 의료, 교육, 간병 및 간호 등), 6차 산업화 및 소비자 발굴 등을 대상으로 하되 2개 이상의 팀으로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1년 뒤 성과에 따라 통합해야 한다.

박현렬 기자

〈2017. 2. 24. 한국농어민신문〉

"품목조직화, 대선 농정공약으로" 우리농업품목조직화지원그룹-노재선 교수



'경쟁에서 협력으로'를 화두로 한 '품목 조직화'를 주요 대선 후보들의 농정공약에 포함시켜 새 정부의 농정 기조에 반영하기 위한 활동이 전개된다. 우리농업품목조직화지원그룹은 지난 16~17일 이틀간 제주 한라골드영농조합법인에서 연찬회를 갖고 올해 사업계획 및 품목 조직화의 당위성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우리농업품목조직화지원그룹 임원인 노재선 서울대학교 농생대 교수는 "이미 소비지 유통에서 산지 유통을 잡으려 하고 있고, 대형 유통 업체들이 산지를 점령하고 있어 농가간 결속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품목 조직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산지는 유통 업체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우리농업품목조직화지원그룹은 품목 조직화의 필요성에 대한 대대적인 교육과 토론을 올해 지속적으로 벌일 계획이다. 일단 올 4월 경북 문경에 위치한 신미네유통사업단에서 회원 연찬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새 정부가 농정기조를 '경쟁에서 협력으로'를 중심으로 한 품목 조직화에 중점을 둘 수 있도록 대선에서의 각 후보 농정공약에 품목 조직화를 주요 화두로 제시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학계와 농민단체, 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우리농업품목조직화지원그룹 주요 임원 및 회원들도 이를 위한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김경욱 기자

Reporter's Page 농기자가 간다

이상훈(바이오시스템공학 09) 모두닥 CSO

봄기운이 오고 있는 관악캠퍼스. 캠퍼스 곳곳을 다니며 '모두의 의사'라는 의미의 '모두닥'을 홍보하는 농생대 동문이 있다고 하여 기자단 기자들이 나섰다. 스마트폰과 5초의 시간만 있으면 서울대입구역과 낙성대역 부근의 치과 예약을 할 수 있는 '모두닥'을 만나보자.

농기자 안녕하세요, 선배님. 독자들에게 본인 소개와 회사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상훈(이하 이) 안녕하세요. 바이오시스템공학전공 09학번이자 현재 모두닥 CSO를 맡고 있는 이상훈입니다. 모두닥은 서울대학교 졸업생 두 명이 운영하고 있는 스타트업이며 스마트폰으로 '병원예약을 5분에서 5초로 줄인다.'라는 취지를 가지고 시작되었습니다. 모두닥 어플은 이용자가 각 병원의 예약 가능 시간을 확인하고, 본인이 여유 있는 시간에 맞추어 병원예약을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병원에 내원하신 분들이 리뷰를 남길 수 있어 사용자들이 병원에 대한 리뷰를 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관악구에 거주하시는 분들과 서울대학교 구성원들에게 유효한 서비스입니다.

농기자 병원 예약이 정말 간편할 것 같아요. 모두닥의 창업 계기가 무엇인가요?

이 원래는 졸업 이후에 회사를 다니고 있었지만, '나만의 사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아이디어 구상, 시장조사, 사업 아이템, 사업계획서 등 여러 가지 일을 스스로 준비하다가 현재 모두닥 CEO를 맡고 있는 안무혁 님을 만나 파트너로 의료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농기자 좋은 파트너를 만난 것도 큰 행운이네요. 모두닥의 지금까지의 진행과 성과는 어떻게 되나요?

이 초기에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열정만을 가지고 캠퍼스를 돌아다니면서 직접 부스를 설치하고, 교내 학생들에게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알리고 비전도 설명하며 홍보를 이어나갔습니다. 진솔한 접근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손편지를 나눠드리기도 했고, 서울대학교 동문의 도움을 받아 페이스북 만화 광고도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홍보했습니다. 직접 발로 뛰며 노력하는 결과가 쌓여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3월에 어플 정식 버전이 출시되었고 현재는 '서울대입구역과 낙성대 근처의 치과 예약과 리뷰'에 집중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두닥을 통한 예약 건수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농기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엄청난 열정이 느껴집니다. 지금 하고 계신 사업이 전공과는 큰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 힘든 점은 없었나요?

이 제 생각에는 어떤 스타트업 자체가 모든 걸 갖추고 시작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혹여나 전공과 관련되어있다고 해도, 창업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모든 것을 갖춘 상태에서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하나씩 부딪혀보면서 배워 나갔습니다. 저는 평소 제 역량이 부족하다고 느끼더라도 '하나씩 배우면서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직접 부딪히며 노력하고 배우다 보니 조금씩 노하우도 생기는 느낌입니다.


모두닥 CSO이상훈(왼쪽), CEO 안무혁(오른쪽)

농기자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을 것 같아요. 학부 때 선배님은 어떤 학생이셨나요?

이 저는 동아리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말하기 동아리 '다담'을 통해 스피치와 토론 능력을 키우고 대학토론배틀에 나가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 회장으로서 조직을 운영하며 책임감을 키웠고, 독립적으로 조직을 이끌어나가는 것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모여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학부생 때 해외봉사, 여행, 학부 연구생, 인턴 등 최대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농기자 앞으로 선배님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이 제 목표는 모두닥이 전국 치과로 확대된 후 다른 진료과들로도 확장되는 것입니다. 의료계에서 정보 비대칭성 문제가 심하고, 병원 간에 광고도 심해지고 있어 신뢰성 있는 정보도 찾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 단위로 병원을 찾을 때, 신뢰성 있는 예약 리뷰 플랫폼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농기자 마지막으로 농생대 재학생과 후배들에게 한 마디 해주세요.

이 제가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 할 수 있는 말은 '무엇이든 정답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기자단 제4기 **나혜지**, 제5기 **박유빈**, 제6기 **김수연**, 제6기 **송이레**

농생대 발전기금 출연 소식

기금 출연해 주신 분들

역대 누적금액 : 28,394,812,144원

기금출연 (2017. 01. 01.~2017. 03. 31.) 당기 누적금액 : 213,039,935원

1억원 이상	
이귀임(故 박진환 명예교수)	100,000,000

1,000만원 이상	
정윤환	50,000,000
㈜농우바이오	10,000,000
㈜이앤티	10,000,000

100만원 이상	
박정호	5,000,000
서진호	5,000,000
용화사(이천희)	5,000,000
㈜비앤피인터내셔널	5,000,000
㈜프로챌코리아	5,000,000
네이처그로㈜	3,000,000
㈜한성티앤아이	3,000,000
채영제	2,500,000
㈜비비씨엔에프	2,340,000
㈜코스켐	2,000,000
후원자00065	1,249,995

100만원 이하	
박승제	300,000
송인홍	300,000
윤철희	300,000
후원자00184	300,000
강문성	249,990
김 준	249,990
손영환	249,990
이인복	249,990
최인규	249,990
최진용	249,990
김성배	240,000
이삼규	200,000

100만원 이하	
강상호	150,000
우제성	150,000
현진호	150,000
이기훈	150,000
김대우	60,000
하기호	60,000
류준구	30,000
서민영	30,000
손창은	30,000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서울대 농생대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소중한 기부금은 '재단법인 서울대학교 발전기금'과 '재단법인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육연구재단'의 엄정한 관리 하에 우리 대학의 교육과 연구 역량 제고에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부가 창의적 역량과 굳건한 의지로 무장한 '선(善)한 인재' 양성으로 이어져 우리 농생대 및 조국의 발전, 나아가 온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부디 이해해 주시어, 앞으로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육연구재단 이사장 정 철 영

[출연방법 안내]

1.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출연

·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홈페이지(www.snu.or.kr) 안내 참고
· 문 의 : Tel. 02-880-8004, 871-8146 / Fax. 872-4149

2.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육연구재단 발전기금 출연

· 참여방법 : 참여 신청서 작성 후 무통장 입금
· 계 좌 : [농 협] 301-0098-3482-21 (예금주 : 농생대교육연구재단)
· 혜 택 : 연말소득공제, 공간 네이밍, 우리대학 주최 행사 우선 초청, 우리대학시설 이용서비스, 기부자예우프로그램 등
· 문 의 : Tel. 02-880-4510 / Fax. 873-5579

People 농생대 사람들

[동문동정]

▶ **허건량** 동문(원예학 77)이 1월 1일 농촌진흥청 차장으로 취임하였다.
▶ **이창재** 동문(임학 80)이 1월 10일 국립산림과학원장으로 취임하였다.
▶ **고기연** 동문(임학 87)이 1월 21일 동부지방산림청장으로 취임하였다.
▶ **나정균** 동문(농공학 84)이 1월 24일 한강유역환경청장으로 취임하였다.
▶ **장중석** 동문(농공학 80)이 1월 24일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장으로 부임했다.
▶ **유행준** 동문(식품공학 74)이 2월 13일 아미코젠(주) 신임사장으로 선임되었다.
▶ **김주곤** 동문(농화학 77)이 2월 28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부회장으로 선임되었다.

[교수동정]



▶ **김경욱 명예교수**(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1월 25일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신입 정회원에 선정되었다.



▶ **김완배 교수**(농경제사회학부)는 3월 15일 국회 「동북아 공존과 경제협력 연구모임」(공동대표: 김부겸, 김태년)에서 주최한 '해외농업과 동북아 경제협력'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토론하였다.



▶ **김유용 교수**(농생명공학부)는 1월 23일에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주최 제28회 국내학술대회에 참석해 '북한 축산의 현황과 남북축산 협력방안'이란 주제로 발표하였다.



▶ **서진호 교수**(농생명공학부)는 2월 24일 한국과학기술한림원에서 수여하는 제2회 대상한림식품과학상을 수상하였다.



▶ **손정익 교수**(식물생산과학부)는 2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 주최 2017 농식품과학기술 미래전망대회에서 종합토론 패널로 참여해 농식품 R&D방향과 성과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신찬석 교수**(농생명공학부)가 이끄는 연구팀이 현재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마이크로RNA 안정성 조절 메커니즘을 세계 최초로 밝혔다. 이 연구 성과는 핵산 분야 권위지인 뉴클레익 애시드 리서치(Nucleic Acids Research; 영향지수(impact factor): 9.202)에 2월 28일 정식 게재되었으며, 해당 저널 편집장 및 심사자들의 높은 추천을 받아 우수 논문(NAR breakthrough article)으로 선정되었다.



▶ **이인복 교수**(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는 2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 주최 2017 농식품과학기술 미래전망대회에서 원예기술 분야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기술 현황·향후과제"란 주제로 발표하였다.



▶ **이찬 교수**(농산업교육과)는 3월 20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주최 「미래지향적 공무원 인재개발을 위한 컨퍼런스」에서 '공무원 역량 교육과 국가인재원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 **이태호 교수**(농경제사회학부)는 1월 25일에 농림축산식품부 주최 '2017년 농림축산식품분야 합동 업무계획 발표회'에 참석해 토론하였다.

[동창회 소식]

▶ 2017년 새해 인사회 개최



2017년 새해 인사회가 2017년 1월 10일 201동 101호 대강당에서 열렸다. 행사엔 류관희 동창회장 외 130명의 동문이 참석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동창회 이사회, 동창회장 신년사, 학장 인사말, 대표 동문 덕담 및 인사말, 축하공연, 장학금 전달식, 동문 상호 간 맞절, 복 떡 자르기, 기념촬영, 후배가 선배께 세배하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행사를 마친 뒤 동문 간 오찬을 가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 소식지를 통해 알리고 싶은 소식이 있거나 구독을 원하시면 농생대 기획실(T. 880-4538, rjg2833@snu.ac.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홈페이지 http://cals.snu.ac.kr
※ 지역번호 (02)
학장실 T.880-4501~2 F.873-7709
교무행정실 T.880-4505-7 F.873-2009
학생행정실 T.880-4531/4508 F.873-5597
연구행정실 T.880-4910 F.873-7729
기획실 T.880-4510/4538 F.873-5579
서무행정실 T.880-4512~5 F.873-0263
입학진로정보실 T.880-4667 F.880-4668

식물생산과학부 T.880-4540
- 작물생명과학전공 T.880-4550 F.877-4550
- 원예생명공학전공 T.880-4578 F.873-2056
- 산업인력개발학전공 T.880-4830 F.873-2042

산림과학부 T.880-4750
- 산림환경학전공 T.880-4777 F.873-3560
- 환경재료과학전공 T.880-4780 F.873-2318

농생명공학부 T.880-4901
+ 식품·동물생명공학부 T.880-4869
- 식품생명공학전공 T.880-4850 F.873-5095
- 동물생명공학전공 T.880-4800 F.873-2271
+ 응용생물화학부 T.880-4640
- 응용생명화학전공 T.880-4650 F.873-3112
- 식물미생물학전공 T.880-4690 F.873-2317
- 곤충학전공 T.880-4700 F.873-2319
+ 바이오모듈레이션전공
T.880-4907 F.877-4906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T.880-4670
- 조경학전공 T.880-4870 F.873-5113
- 지역시스템공학전공 T.880-4580 F.873-2087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T.880-4590
- 바이오시스템공학전공 T.880-4600 F.873-2049
- 바이오소재공학전공 T.880-4620 F.873-2285

농경제사회학부 T.880-4710
- 농업·자원경제학전공 T.880-4711 F.873-3565
- 지역정보전공 T.880-4740 F.873-5080

협동과정 농생명유전체학 T.880-4901 F.873-2039

협동과정 농림기상학 T.871-0211 F.871-0230

농장 T.(031)293-0310~2 F.(031)295-4216
수목원 T.(031)473-0071 F.(031)473-0072
학술림 T.880-4526 F.873-2031
실험목장 T.(033)339-5901 F.(033)339-5909
농학도서관 T.880-4774~5 F.884-0182
교육연수원 T.880-4844 F.872-8995
농업공작실 T.880-4619
농업생명과학정보원 T.880-4523 F.882-7670
식품공장 T.880-4824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T.880-4845 F.888-4847
식물병원 T.880-4697 F.880-4698
농생명과학 창업지원센터
T.(031)293-0324 F.(031)294-8527
농업생명과학연구원 T.880-4910~4 F.873-7729
식품바이오융합연구소 T.880-4920~1 F.873-5260
식물유전체육종연구소 T.880-4930 F.873-5410
곰팡이병원성연구센터 T.880-4950 F.873-4950
세균의사소통창의연구단 T.880-4686 F.873-2317
식품안전성 및 독성연구센터
T.880-4919 F.883-4919
채소육종연구센터 T.880-4945 F.873-5410
농생명 및 식품산업 혁신 역량 강화사업단
T.880-4631 F.873-3565
농생명공학사업단 T.880-4901~2 F.873-2039
식물분자육종사업단 T.880-4978~9 F.875-4978
최고농업정책과정 T.880-4735 F.886-4898
농식품경영·유통최고위과정 T.880-4735
국가농림기상센터 T.871-0234 F.871-0230

서울대학교 국제농업기술대학원
25354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평창대로 1447
홈페이지 http://greenbio.snu.ac.kr/
T.(033)339-5680 F.(033)339-5689